

[스피치 테라피 Package]

어느 때보다 한 마디의 말이 중요한 지금! Speech Therapy

1. 스피치에도 첫인상이 중요하다? 인상적인 오프닝을 위한 4가지 기술

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중요하듯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.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청중은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서 들을 지 말 지를 결정하지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프닝을 인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?

http://www.bizcuit.com/kr/contents/contents_view?ct_idx=243

2. 청중의 머리에 깊숙하게 박히는 한 줄? 키 메시지를 활용하라!

연설이 끝나고 나면 청중들은 연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? 아마 전부를 기억하는 청중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. 심지어 연설자가 전하려고 한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요. 하지만 키 메시지를 활용하면 청중의 머리에 강한 메시지를 심어 오래 기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도대체 무엇이고,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?

http://www.bizcuit.com/kr/contents/contents_view?ct_idx=231

3. 청중의 공감을 사려면 스토리로 우뇌를 자극하라!

부모님께 효도하라라는 말 보다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의 이야기가 훨씬 마음에 와 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것은 심청이의 이야기가 우뇌를 자극하여 공감을 이끌어 냈기 때문입니다.

http://www.bizcuit.com/kr/contents/contents_view?ct_idx=236

4. 청중을 핵심 메시지에 몰입시키고 싶다면, PREP 4단계를 밟아라!

가끔 보면 참 장황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뭘 주장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스피치가 있습니다.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? 세계 최고의 컨설팅회사 맥킨지에서 제시하는 스피치 기법, PREP 4단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.

http://www.bizcuit.com/kr/contents/contents_view?ct_idx=4189

5. 청중과 통하고 싶은가?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!

좋은 내용, 명확한 논리와 타당성... 이것만으로 청중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?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. 어떤 행동일까요?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.

http://www.bizcuit.com/kr/contents/contents_view?ct_idx=3559

6. 판생각하는 청중? 어렵게 말하는 연설자 탓이다!

스피치에 집중하지 못하고, 꾸벅꾸벅 졸거나 산만한 청중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꽤심하다? 짜증난다? 하지만 그게 다 연설이 어렵기 때문이라면요? 어려운 연설은 청중들의 귀를 사로잡지 못합니다. 청중을 사로잡는 쉬운 연설!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?

http://www.bizcuit.com/kr/contents/contents_view?ct_idx=230

7.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한 장면을 만들고 싶다면? 리듬감을 심어라

유독 기억에 남아있는 명 연설 명 장면이 있습니다. 그런 장면들은 대부분 단순한 연설의 내용 뿐만이 아니라 연설자의 어조, 제스처, 표정까지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지요. 그런데 그러한 명 장면의 비결이 스피치에 리듬감을 심어주는 것에 있다고 하는데요. 노래도 아니고, 스피치에 리듬감이라니? 무슨 소릴까요?

http://www.bizcuit.com/kr/contents/contents_view?ct_idx=237

8. 귀가 솔깃하게 만드는 청중 맞춤형 스피치, 어떻게 하나?

시험을 앞두고 출제자의 마음을 미리 알 수 있다면? 훨씬 효과적으로 시험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스피치도 마찬가지인데요. 듣는 사람들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준비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스피치를 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죠.

http://www.bizcuit.com/kr/contents/contents_view?ct_idx=234

9. 도대체 아무 반응도 없는 청중... 그들을 사로잡으려면?

애써 준비한 내용을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, 청중은 영 반응이 없다고요? 벽에다 대고 말하고 있는 느낌! 그 무안한 순간을 피하려면, 청중을 연설에 끌어들어야 합니다. 마치 청중을 끌어들여 그들과 대화하는 듯한 연설,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

http://www.bizcuit.com/kr/contents/contents_view?ct_idx=146

10. 나 혼자만 떠드는 스피치? 뜰들이기로 청중과 함께 호흡하라!

맛있는 밥을 짓기 위한 뜰들이기. 뜰을 들이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이 시간이 밥맛을 좌우하죠. 그런데 스피치에도 뜰들이기가 있다는 사실, 혹시 아십니까? 적절한 뜰들이기는 말하는 사람과 청중을 함께 호흡하게 해 스피치에 더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. 3가지의 방식으로 뜰들이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

http://www.bizcuit.com/kr/contents/contents_view?ct_idx=246

11. 000만 있으면 된다?!

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스피치라도 항상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데요.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죠.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? 바로 이런 돌발상황까지 예측하고 미리 꼼꼼히 준비하는 자세인데요. 스피치 도중 일어날 수 있는 돌발상황과 그 대책,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
http://www.bizcuit.com/kr/contents/contents_view?ct_idx=312

12. 두고 두고 생각나는 스피치, 클로징에 달려있다!

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스피치.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?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가장 나중에 들은 정보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. 마지막이 멋들어지게 마무리된다면 스피치 전체에 대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겠죠. 인상적인 클로징을 하는 세 가지 팁을 알아보시죠.

http://www.bizcuit.com/kr/contents/contents_view?ct_idx=546
